



2022 WINTER VOL. 107

INSIDE

Young ISU

이수그룹 공채 27기 신입사원

이수 플레이리스트

내 고막을 책임져 줄 인생 음악 공유해줘!

OUTSIDE

이수튜브

영화&드라마 리뷰, 진짠 채널만 모았다

이수 테이블

요알못을 구원해줄 신박한 푸드 레시피

스페셜 리포트

2022년을 지배할 트렌드 이슈

2022

innovation



# Contents

# 01

## Cover story



### 표지 모델

(주)이수: 송성은 사원

이수화학: 이하연 사원

이수페타시스: 임재현 사원

이수시스템: 전수현 사원

이수엑사캠: 제형준 사원

이수그룹의 새 얼굴, 공채 27기 신입사원이 사회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그들에게 임인년 새 해의 태양을 닮은 갈채를 보내자.

# 04

## INSIDE

04 **신년사**

07 **Focus & News**

12 **Young ISU**

이수그룹 공채 27기 신입사원

18 **커뮤니케이션 Talk**

이수인들의 속 시원한 카운슬링

22 **이수 플레이리스트**

내 고막을 책임져 줄 인생 음악 공유해줘!

임정훈 대리(이수페타시스 경영지원팀)

황정목 과장(이수건설 플랜트영업팀)

이지원 사원(이수시스템 Cloud서비스팀)

26 **이수타그램**

사진과 해시태그에 담긴 아름다운 추억들

최재현 과장(주)이수 경영지원팀)

이정구 과장(이수화학 인사팀)

# 29

## OUTSIDE

29 **이수튜브**

영화&드라마 리뷰

진짜 채널만 모았다

36 **이수 테이블**

오븐에 구울까? 아님 접어?

요알못을 구원해줄 신박한 푸드 레시피

40 **스페셜 리포트**

'TTTB'에서 '헬시 플래저'까지

2022년을 지배할 트렌드 이슈

46 **ISU PLACE**

두 작가의 감성이 만나는 밤의 풍경

박세진 작가·이혜인 작가

50 **옴부즈맨**

52 **컬러링 테라피 및 업서**

이수그룹 계간 사보 2022년 신년호 통권 107호

발행일 2022년 1월 19일

발행인 김상범

발행처 (주)이수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총괄진행 안영준 02-590-6811

사보기자 이수화학(이정구·신기연) 이수페타시스(이준경·한수진)

이수건설(한수진) 이수시스템(김용훈) 이수창업투자(김경문)

이수멤지스(양예슬) 이수엑사캠(박지웅) 이수AMC(이홍휘)

제작디자인 크리스마스 기획실장 우인재, 디자이너 김소현

인쇄 캠프로세스

본지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자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수그룹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해당 필자들의 견해이며, 이수그룹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수가족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수가족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건강한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21년은 화학, 엑사켄, 페타시스 중심의 괄목할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그룹 출범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비록 사업환경으로 인해 역사보드 철수라는 불가피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화학의 신규 사업인 NOM/NDM의 성공적 양산, 페타시스 후난의 흑자전환, 앱지스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추진 등 의미 있고 자축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내벤처 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화를 위한 2건의 스피노프를 추진하였고, 주축 계열사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그룹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초석을 다지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와 어려운 결정을 함께 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은 이러한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고자 그룹 최대 매출액, 영업이익의 경신 및 전 계열사 흑자 시현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경영환경은 뉴 앱노멀(Abnormal, 새로운 비정상 상태가 고착화되는 상황)과 초불확실성(Hyper Uncertainty)으로 대변될 만큼, 예고 없는 대변화(Big Change)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우리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기반으로, 무엇에 집중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할 것인지 사전에 철저히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자만이 대변화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르는 보상은 클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 모두에게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핵심가치로 실천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첫째, 새로운 패러다임(판)을 만들어가는 '혁신(Innovation)'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혁신이 기존 틀 안에서 향상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선(Improve)의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장의 판을 바꾸는 창조(Invent)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과거에 축적해 놓은 노하우를 답습하는 구태의연한 사업 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시장의 요구를 고민하고 혁신적인 접근을 통하여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속에 사고방식, 행동, 전략 등 모든 면에서의 변화를 이루어 경쟁사를 뛰어넘는 탁월한 감각을 지닌 고수로 거듭나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의 가속입니다.**

디지털 전환이란, 기업의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자동화 추구를 넘어, 조직을 개편하고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고객경험, 사업모델, 운영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과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기존 오퍼레이션의 디지털화, 신사업의 디지털화, 업무 방식의 디지털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분야부터 성공사례를 확보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임직원의 디지털 역량 보유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성공 여부에 그룹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절박함으로, 디지털 기술의 접점에서 그룹의 핵심가치를 제외한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수가족 여러분, 올해는 이수그룹의 장기적인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과거의 성공이며, 미래의 가장 큰 적은 과거의 성취에 도취된 현재 모습입니다. 죽기 살기로 변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판을 바꾸는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치 아래 전사적으로 신기술, 신사업 등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여 이수그룹의 실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3일

이수그룹 회장 김상범 



## ㈜이수

### 2022년 신입사원 입문과정 진행



이수그룹은 지난 1월 3일, 신입사원 입문과정을 가졌다. 2022년 신입사원으로 최종 선발된 27명은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에 맞추어 기획된 교육 과정을 본사 1층 교육장에서 이수했다. 한편 이수그룹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입사원 공개모집을 위한 지원서를 접수 받았으며, 서류전형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무진 면접 및 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 이수화학

### 울주군 온산읍 저소득층에 3,000만 원 기부



이수화학은 지난해 12월 3일 온산읍 행정복지 센터에서 겨울을 맞은 지역 저소득계층을 돕기 위해 온산청년회에 성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수화학이 전달한 따뜻한 마음은 울주군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비롯해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및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이수봉사단은 온산읍 체육회, 청년회, 장학위원회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를 꾸준히 행하고 있다.

## 이수화학

### 한가람포닉스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이수화학의 자회사 한가람포닉스는 지난해 12월 17일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서 진행되는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인 '캄보디아 고품질 채소·과채류 스마트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ODA 사업을 통해 K-스마트팜의 우수성을 현지에 홍보하고, 한국의 스마트팜 시공 및 재배기술을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수페타시스

### 비대면 사회공헌활동 물품기증 시행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이수페타시스는 비대면 사회공헌활동인 물품 기증 활동을 진행하였다. 임직원이 기증한 품목은 총 731개였으며 참여 인원은 모두 41명이었다. 임직원이 기증한 물품은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굿윌스토어로 기증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진행하던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임직원이 다 함께 참여하는 비대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이수건설

### 여주 신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수주



이수건설은 지난해 11월 4일 민간건축부문의 '여주 신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최종 계약자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신근리 275-1 일대에 세워지는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13,952평 규모의 1개동 창고시설로 2023년 8월 완공 예정이며, 이수건설 최초의 물류센터 수주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이수건설은 지난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천 검단 공동주택용지 AB-8BL & 도시지원시설 용지 6-4BL 설계공모형 공공택지 사업' 공사를 수주하였다.

## 이수시스템

### 안전관리 솔루션으로 울산산업안전위크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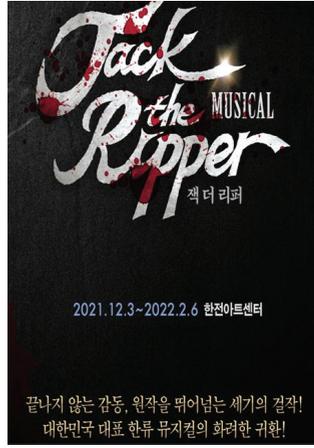


이수시스템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3일간 개최된 '2021 울산산업안전위크'에서 현장 안전 솔루션들을 소개했다. 이수시스템이 새롭게 선보인 '스마트앤세이프티(Smart & Safety)'는 현장과 상황실, 현장과 현장 간의 실시간 영상을 기반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특히, 작업 환경별로 스마트폰, 스마트 조끼, 스마트 헬멧 등 사물인터넷(IoT) 안전장비가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현장 작업자가 장시간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수창업투자



영화 <비상선언>



뮤지컬 <잭 더 리퍼>

영화 <비상선언>, 뮤지컬 <잭 더 리퍼>

이수창업투자가 국내 최초 항공재난 영화와 흥행 가도를 질주 중인 뮤지컬을 소개한다. 올 상반기 최대 기대작인 <비상선언>은 <관상>, <더 킹>을 연출한 한재림 감독의 신작으로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등 초호화 배우 캐스팅과 함께 칸 영화제 초청작으로 화제를 모았다. 2019년 10주년 기념공연 이후, 3년 만에 화려하게 돌아온 뮤지컬 <잭 더 리퍼>는 엄기준, 이홍기 등 화려한 캐스팅과 완벽한 앙상블로 평단과 관객의 찬사를 받으며, 흥행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이수앱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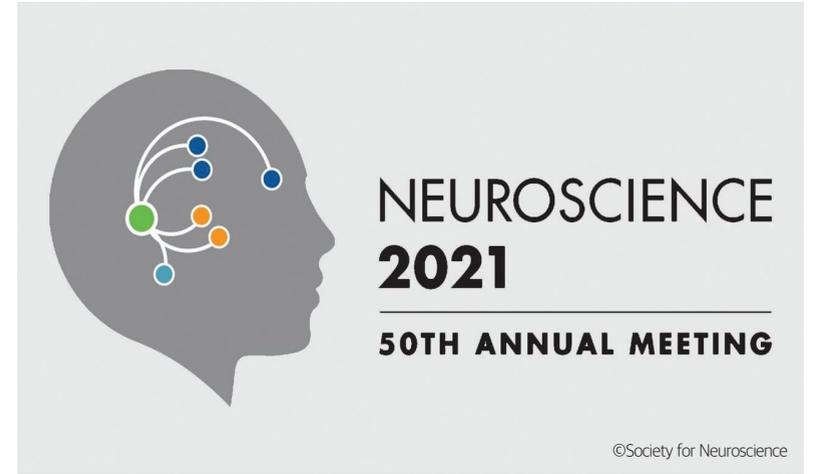


제58회 무역의 날 '1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이수앱지스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이수앱지스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약 130억 원 규모(1,114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며 이번 '1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게 됐다. 이수앱지스는 2012년 '1백만불 수출의 탑', 2016년 '5백만불 수출의 탑'에 이어, '1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9년 만에 해외수출 규모가 10배 확대되는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수앱지스

알츠하이머병 신약 연구 결과 '뉴로사이언스 2021'에 발표



이수앱지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뇌신경과학 학술대회인 '뉴로사이언스(Neuroscience)'에서 혁신 신약(First in Class)으로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병 항체 신약 'ISU203'의 마우스 질환모델 연구 결과를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했다. 이수앱지스는 알츠하이머병 마우스에 ISU203을 투여한 결과, 혈장에서 ASM(Acid Sphingomyelinase)이 64% 줄었다고 밝혔다. 이수앱지스는 현재 외부 CDMO 전문 업체와 세포주 개발 관련 논의를 병행하며 치료제 개발 속도와 혁신 신약으로서의 차별성 데이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수엑사캠

코로나19 극복 방역키트 기증



이수엑사캠은 지난해 12월 13일, 용산복지재단에 코로나19 극복 방역키트를 기증했다. 기증한 코로나19 방역키트에는 방역마스크, 소독 스프레이, 손소독 젤, 살균 티슈 및 클립 등 코로나19 극복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담았다. 이수엑사캠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다"라고 말했다. 이수엑사캠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 및 기부를 이어갈 예정이다.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 공채 27기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임인년 호랑이 해를 맞이해 이수그룹에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했다. 용맹한 기운을 품은 공채 27기 신입사원들. 일당백의 마음가짐으로 사회를 향해 힘찬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그들을 만나면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어질 것이다.



**(주)이수**  
송성은 사원

**Q.**

1. 팀의 애칭을 정한다면?
2. 나(우리)에게 회사란?
3. 각오 한 마디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촬영하였습니다.  
(27명의 사원들을 1명씩 각각 촬영 후 합성 편집)

1. 일당백(혼자서도 능히 100명의 몫을 해내겠습니다!)
2. 사회인 첫 걸음(성큼성큼 거인의 마음가짐으로 걸어보자는 뜻)
3. 2행시 한 번 읊어보겠습니다.  
'이' 이수인으로서 '수' 수월 넘치게 나아가자!

#(주)이수 #일당백 #사회인첫걸음 #수월넘치는이수인

## 이수화학



1. 케미폭발(9인의 화학적 궁합이 이보다 좋을 수 없다)
2. 최선과 최고('최선'을 다해 '최고'가 되는 곳)
3. 자랑스러운 이수인, 뛰어난 화학인이 되겠습니다!

#이수화학 #케미폭발 #최선 #최고 #자랑스럽게 #뛰어나게

석신영 사원

김영건 사원

변상화 사원

김종현 사원

김나형 사원



### 이수페타시스

1. 이수펙터클시스(이수페타시스와 스펙타클의 합성어)
2. '믿음' 우리를 믿어주시는 만큼 보답하겠습니다!!
3.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스펙타클 #이수페타시스 #믿음 #보답  
#가장빠른신입사원



임재현 사원

정도현 사원

### 이수건설

1. 똑딱똑딱(리듬감이 신나는 건설현장의 소리)
2. 기초를 튼튼하게 잡아 올곧게 성장하자!
3.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사고이므로  
안전사고 제로(0)를 달성하고 싶습니다.

#똑딱똑딱 #기초튼튼  
#높은성장 #안전사고제로



하승엽 사원

최원식 사원



박인성 사원

이상윤 사원



**이수익사캠**

제형준 사원

1. 원더랜드(새로운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에 지은 이름)
2. 터닝 포인트(새로운 시작이며 동시에 삶의 전환점이라는 의미)
3. 꾸밈없이 정직하게 업무에 임하여 영업 전문가로 거듭나겠습니다!

#원더랜드 #새로운꿈 #터닝포인트  
#정직한 #영업전문가

배민기 사원



이지원 사원



전수현 사원



이재준 사원



류요선 사원



**이수시스템**

1. 개발바닥(첫 '개발'인 만큼 '바닥'부터 성장하자는 의미)
2. 우리 삶을 위한 최고의 시스템 솔루션
3. 개발자로서 탑(Top)이 될 때까지 화이팅!!

#개발바닥 #개발자 #최고의솔루션 #당찬러라



톡·톡·톡  
사이다  
상담소

## 이수인들의 속 시원한 카운슬링

공공 얼음 바람이 따스한 봄을 더욱 그립게 만드는 계절입니다.

직장 혹은 사회나 가정에서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들을 명쾌하게 풀어 드립니다.  
때로는 선배가, 때로는 동료와 후배가 해결해주는 알쏭달쏭한 고민들.  
그들이 사이다 상담소를 찾는 사연은 무엇인지, 카운슬링 토크에 귀기울여 볼까요?

## Q

2022년부터 30대로 진입했습니다! 30대에 꼭 경험해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김중훈 대리  
(이수앱지스 전략기획팀)



김중훈 대리

이제 막 30대로 접어든 새내기 30살입니다. 앞자리 숫자가 달라지니 아무래도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느낌인데요. 30대에 반드시 해야 할 경험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박애리 사원



저도 30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30대에 경험해보아야 할 것을 떠올리자면 '혼자 여행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김중훈 대리

나 홀로 여행! 귀가 솔깃하네요. 추천하시는 이유를 여쭙봐도 될까요?

박애리 사원



이수시스템으로 이직하기 전, 일주일 정도 시간이 비어서 혼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당시 주변 친구들과 시간이 맞질 않았지만 반드시 여행을 가야겠다는 생각에 나 홀로 여행을 결심했어요.



김중훈 대리

아 역시 무언가 계기가 있으셨군요. 다녀와서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여행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박애리 사원



홀로 여행을 하면서 20대에 친구들과 다니던 여행과는 색다른 묘미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우선 일정에 구속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어서 여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바다명(바다 보면서 멍 때리기)을 오래 즐길 수도 있고, 하고 싶거나 먹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정하면서 온전한 자유를 느낄 수 있어 좋더라고요.



김중훈 대리

와우 자연스럽게 혼밥도 도전하셨겠네요.

박애리 사원



그럼요. 혼밥 레벨도 고기집까지 업그레이드됐답니다! 뿐만 아니라 낯선 행선지를 혼자서 찾아가고 새로운 풍경을 눈에 담으면서 좀 더 여행의 시간이 여유로우면서도 길게 느껴지고 새로운 자극이 더 기억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김중훈 대리

듣고보니 나 홀로 여행의 장점이 생각보다 정말 많네요.

박애리 사원



네 맞아요. 무엇보다 사색의 시간이 길어지니 30대를 어떻게 보낼지 차분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점이 가장 좋았어요. 30대의 계획과 다짐의 시간을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나 홀로 여행 경험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 A

박애리 사원  
(이수시스템 신성장사업팀)

# Q

요즘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MZ세대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지 궁금합니다.

김종범 부장  
(이수화학 인사팀)



김종범 부장

안녕하세요.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 갈 MZ세대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미 기성세대에 속하는지라 더 궁금하더라고요

제형준 사원



안녕하세요. 부장님. 사실 제가 MZ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지만 스트레스 해소법에 있어서는 나이나 세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종범 부장

네 맞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개인의 스트레스 지수는 올라가는 법이니까요.

제형준 사원



저는 평소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맛집 탐방을 즐겨하는 편입니다. 특히 요즘은 각기 개성이 풍부한 음식점과 카페가 많은데 이러한 점은 독특함이나 새로운 것을 중요시하는 MZ세대들은 물론 다양한 세대를 폭넓게 포용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범 부장

듣고 보니 그러네요. 맛있는 먹거리만큼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요소는 많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제형준 사원



저도 그런 면 때문에 식도락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음식점에서 혹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기회가 될 때 마다 맛집을 찾아 돌아다니는 편입니다.



김종범 부장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지네요. 구체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맛집 하나를 꼭 집어 주신다면요?

제형준 사원



저는 유난히 한옥 스타일의 음식점을 좋아하는데요. 피자를 좋아하신다면 3호선 안국역 근처에 위치하는 플롭(PLOP)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한옥의 분위기와 맛까지 모두 갖춘 최적의 맛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rob변에 있는 보통의 피자 전문점과는 다르게 좁은 골목 사이에 형성된 먹자골목 텨마구니에 자리 잡고 있어 종로 특유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 A

제형준 사원  
(이수엑사캠 국내영업팀)

# Q

사무실에서 더 나은 업무환경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자신만의 아이템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현택 사원  
(㈜이수 경영지원팀)



정현택 사원

요즘 집과 회사만 오가다 보니 사무실이 제2의 집과 같은 공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직장인들이 겨울철 습도 조절을 위한 소형 가습기 혹은 허리 건강을 위한 요추 베개 등의 개인 아이템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더 나은 업무환경을 위한 대리님만의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구효정 대리



제게는 더 나은 업무환경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머스트 아이템'이 있는데요.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간단한 간식거리입니다.



정현택 사원

사탕이나 초콜릿처럼 달달한 먹거리라면 흔히 말하는 '당 떨어질 때' 혹은 매일 누적되는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 드시는 건가요? 하하~

구효정 대리



네 그런 측면도 있죠 ^^ 다른 한편으로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가끔 두뇌회전이 느려지는 걸 느낄 때가 종종 있는데 이때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를 먹고 나면 다시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정현택 사원

날로 늘어가는 뱃살 때문에 지나치게 단 음식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두어도 되겠네요. 어디까지나 업무를 위한 거니까 말예요.

구효정 대리



맞아요~ 그래서 책상 한켠에 간단한 간식거리를 챙겨 두면 저도 먹을 수 있지만 주변 동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이에요. 나누어 함께 먹다보면 아무래도 오가는 달달이 속에 서로에 대한 정이 싹트지 않겠어요? 다이어트와는 조금 멀어질 수도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한답니다 ^^

# A

구효정 대리  
(이수페타시스 연구팀)



## 내 고막을 책임져 줄 인생음악 공유해줘!

누구나 한 곡 정도는 인생 땡곡이 있게 마련이다. 기분 좋은 순간 기쁨을 배가시켜 주는 노래, 운치 있게 눈 내리는 날 감성을 한껏 자극하는 노래 그리고 행복했던 추억을 생생하게 되살려주는 노래까지. 우리의 고막을 책임져 줄 이수 가족들의 인생 음악을 들어볼까?



## 하루하루가 소중한 지금 추천하는 노래

임정훈 대리 | 이수페타시스 경영지원팀

요즘은 코로나19로 집에서 쉬거나 가끔 주말에 캠핑을 다니고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하는 게 좋겠다 싶거든요. 캠핑장은 야외인데다 옆 사이트와는 적당한 안전거리를 두고 있어서 좋아요. 집에만 있느라 답답했던 마음에 그나마 위로가 되어줍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제한된 삶은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인지 요즘 유독 빅뱅의 '하루하루'라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었던 시절, 친구들과 노래방 다닐 때는 취향에 맞는 노래를 부르다가 빅뱅 노래만 나오면 다 같이 떼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노래 가사 중에 "그럭저럭 참아볼 만해 그럭저럭 견뎌낼 만해, 넌 그럴수록 행복해야 돼 하루하루 무뎌져 가네"라는 대목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나서 놀 수 있었던 그 시절에 부르던 노래라 요즘 같은 시기에 더욱 생각납니다.

### comment

제가 평소에 즐겨 듣는 노래 다섯 곡을 추천합니다. 최근 노래가 아니라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볼 만한 좋은 노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빅뱅 Stand Up(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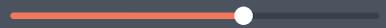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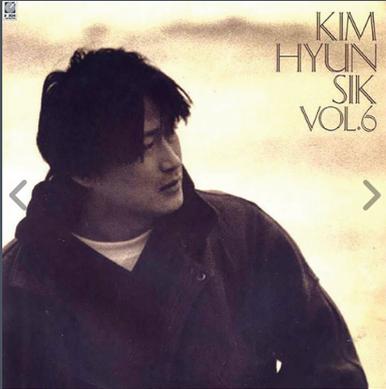
▶

나만의 추천 땡곡 리스트

- Y(Please Tell Me Why) 프리스타일
- 오래된 노래 스탠딩 에그
- Fly 에픽하이
- 벌써 일년 브라운 아이즈
- 사진을 보다가 바이브

## 나의 하루는

김현식 6집(1991)



### 나만의 추천 평곡 리스트

 **내 사랑 내 곁에**  
김현식

 **겨울바다**  
김현식

 **사랑했어요**  
김현식

 **추억 만들기**  
김현식

 **사랑사랑사랑**  
김현식

## 김현식의 독보적 음색에 빠져 보실래요?

황정목 과장 | 이수건설 플랜트영업팀

초등학교 4학년 때 누나가 선물 받았던 김현식 6집(미완성 유작 앨범) 테이프를 듣고 김현식이라는 사람의 사연 있는 독보적 음색에 반했습니다. 저는 노래를 듣는 것보다 부르는 걸 더 좋아하는데 알면 알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나 자신이 특별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온전히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에 빠지게 되거든요.

가사를 들어보면 “**월 새 없이 지나가는 시간의 발걸음 속에서도 나는 또 나의 하루를 아쉬움 속에 마감해~**”라는 부분이 가장 공감됩니다. 요즘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진 상황에서 특별할 것 없이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해 지나간 하루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하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가능한 많은 것을 느끼면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이 담담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기왕이면 김현식 6집 전체를 들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 comment

김현식 6집에는 생각보다 익숙한 노래들이 많이 담겨 있어 아마도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90년대의 감성이 담긴 옛 노래를 맛보기에는 더 없이 좋은 앨범이라 생각합니다!!

## 편안함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노래

이지원 사원 | 이수시스템 Cloud서비스팀

저는 'Our Love'라는 노래를 추천합니다. 이 곡은 70년대의 감성과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매력적인 노래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차안에서 Daniel Boone의 'Beautiful Sunday'라는 노래를 자주 들곤 했는데 바로 이 노래에서 비슷한 향수가 느껴집니다. 요즈음 출퇴근할 때 매일 듣고 있는 노래인데 출근하기 전에는 차분한 마음가짐을 갖게 하고 퇴근 후에는 하루 일과의 끝을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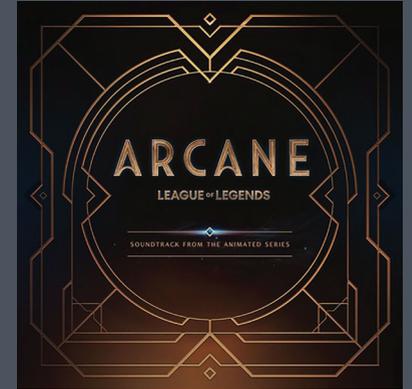
이 노래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제작진이 만든 애니메이션의 OST예요. 친한 친구의 권유로 게임을 같이 즐기게 되었고, <아케인>도 친구와 같이 보게 되었죠. 제일 친한 친구와 취미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기에 이 노래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 우정도 계속되길 바라**”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이 노래처럼 제가 아끼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 comment

몽환적인 멜로디의 노래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멍때리면서 듣다보면 문득문득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게 될지도 몰라요. 감성적인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 Our Love

넷플릭스 시리즈 <아케인> OST(2021)



### 나만의 추천 평곡 리스트

 **새벽길**  
CHEEZE(치즈)

 **돌아가자**  
백예린

 **비밀의 화원**  
아이유

 **She**  
전나비

 **LOVE YA!**  
혁오



최재현 과장(㈜이수 경영지원팀)



### 스페인 세비아, 특별한 일상의 추억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잃은 지 꼬박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상이 기억 저편 넘어 어딘가 사라져 가고 있을 때 문득 핸드폰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2019년 스페인 세비아를 여행할 때 새벽 공기를 마시며 아무도 없는 거리를 자유롭게 누비며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제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해준 이유 중 하나는 칙칙 같은 어둠 속 거리가 동이 트면서 멋진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상실감으로 인해 때로는 견디기 힘든 하루를 보내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또 한 번 햇살이 비추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며 살아가는 이수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맞이할 소중한 일상을 위해 힘내볼까요?

#스페인여행 #세비아 #특별했던일상 #희망 #이수가족화이팅



이정구 과장(이수화학 인사팀)



### 사랑한다 우리 아들

매주 주말이면 "아빠, 오늘은 어디 갈 거야?"하며 아이가 묻습니다. '아이라기 불 만한 곳'이라는 검색어로 외출할 곳을 찾습니다. 그 날은 모기업의 자동차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제게 부모님과 나의 연례행사였는데 요즘은 어딜 가나 아이들과 나온 가족으로 붐빕니다.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체험하게 해주고픈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못 이기는 척 나서지만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억도 못할 텐데 여기저기 다녀서 뭐냐?"라는 제 말에 아내는 "아이의 정서에 남는다"고 하네요. 오늘도 아이의 정서에 기억될 나들이 장소를 찾아 검색을 합니다. 사실 이수타그램에 사연을 기고하는 이유도 아이가 사보에 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좋아할까 싶어서입니다. 사랑한다 아들!

#가족나들이 #아빠와아들 #이큐EQ #사랑하는가족

독자 여러분의 사진을 받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곁에 놓치지 가까운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속에 담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사보에 실리는 행운과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카카오톡 ID : hello8909 / 이메일 : ahn621@isu.co.kr



OUT  
SIDE

## 영화&드라마 리뷰, 진짜 채널만 모았다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 플러스, 애플TV 플러스 등 세계적인 OTT 플랫폼이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영화와 시즌제 드라마 리뷰에 대한 관심도 날로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즐거이만 나열하는 유튜브 영상 리뷰 속에서 제대로 된 리뷰 채널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일.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영상을 분석하는 채널들은 그래서 더욱 진귀한 보석과도 같다. 유튜브 순위 상위 채널들 중 고르고 골라 진짜 채널들만 소개한다.



## 우리가 사랑한 영화의 비하인드 더 썸 ▶



우리 영화나 드라마의 제목은 해외에서 어떤 제목으로 번역해 소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 '이런 제목들은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었을까?'라는 콘텐츠가 흥미롭다.



### 빨강 도깨비

채널을 개설한지 10년이 넘은 전통의 리뷰 채널로 줄거리 위주의 단순한 내용 소개는 지양하고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 영화와 현실 비교, 영화 속 개념 총정리 등 매우 다양하면서도 재밌는 테마들을 다루고 있다. 조회수 1,390만 회에 달하는 '〈쥬라기월드〉 제작 비하인드'의 경우 실제 배우들의 움직임을 모션 캡처해 되살린 공룡의 액션 장면, 오리지널 시리즈에 대한 오마주 등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콘텐츠 중에는 마블이 창조한 세계관의 작품들 중 가장 흥측하고도 기괴한 시리즈로 평가받고 있다는 <왓 이프>(What if)에 관한 리뷰가 눈에 띈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이 시리즈의 한 에피소드에서는 우리가 사랑했던 마블 히어로들이 좀비로 등장하는 충격적인 설정이 눈길을 끈다.

## 영화의 세계를 분석하는 시네마 백과사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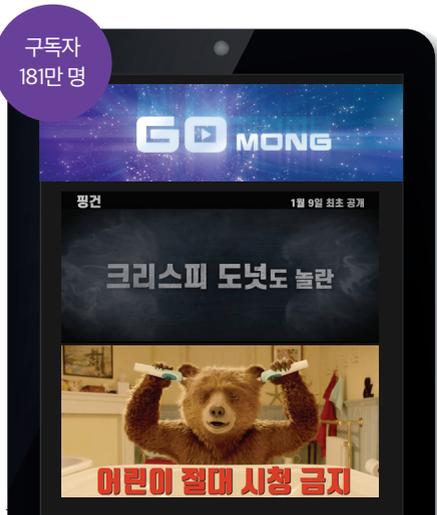
### 지무비 G Movie

두터운 마니아 층을 보유한 영상 리뷰 채널로 20여 종류가 넘는 다채로운 콘텐츠 카테고리 중에서도 'G리즈는 시리즈'를 강추한다. CG가 아니어서 더욱 놀라운 프랙티컬 이펙트(Practical Effect)의 세계를 제대로 맛보고 싶은 영화 애호가라면 응당 보아야 할 콘텐츠가 아닐까. 요즘은 헐리우드 영화는 물론 한국 영화에도 CG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시대. 하지만 명작들은 여전히 장인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 모형이나 미니어처 등을 활용해 CG보다 더 정교하고 실감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명봉 45만 개로 만든 레이싱 경기장, 도시 전체를 미니어처로 제작한 세트장, 사람 머리도 들어갈 크기로 재현한 절대 반지 등 볼수록 놀라운 소품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구독형 영상 플랫폼이 전성기를 맞이한 요즘 가장 인기가 좋은 카테고리인 역시 OTT(Over The Top) 관련 리뷰 콘텐츠다. 타노스가 어벤저스 히어로에게 두들겨 맞은 횡수도 알려준다.

## 최고의 문화 콘텐츠 해설가를 꿈꾸는 유튜버



토크쇼 형태로 진행되는 '오늘 밤엔 이 영화'는 금요일 밤에 어울리는 콘텐츠. <암수살인>, <버닝>, <조디악> 등 논란과 화제를 불러 모았던 작품들을 접할 수 있다.

**고몽** 운영자가 최고의 문화 콘텐츠 해설가가 되고자 시작한 리뷰 채널이다.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이라면 이른바 '막장 드라마'로 불리는 국내 TV 시리즈도 디테일하게 소개한다. 더욱 놀라운 점은 운영자가 직접 제작한 오리지널 작품도 볼 수 있다는 사실. 고몽 오리지널 <손의신>이 바로 그것이다. 손가락에서 총알이 발사되는 초능력이 생겨버린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 시리즈물은 황당무계하지만 실소가 터져 나오는 병맛 작품이다. 비주류인 독립영화를 꾸준히 리뷰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직접 성우가 되어 영상에 더빙을 입히고 리뷰하는 '더빙의 고몽' 등 보통의 유튜버 채널과 차별화를 이룬 콘텐츠들로 가득하다.

## 영화의 미학을 재미로 풀어내는 시선



**김시선** 누적 조회수 4억4천만 회를 달성한 유튜버 채널로 신작 영화를 비롯해 드라마, 게임, 광고, 뮤직비디오 등 영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콘텐츠를 다루고 있다. 단순히 리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인 '쇼트'를 해설하거나 인도 영화가 춤을 추는 이유에 대하여 분석하고, 봉준호 감독의 앵글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 하는 등 시네필(Cinephile)의 지식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깊이 있는 영상들이 돋보인다. '김시선이 출연한 재미난 것들'에서는 1년에 평균 700편 이상의 작품을 감상하느라 밥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종일 영화를 본다는 영화 마니아 김시선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유튜버와 콜라보한 영상들도 매우 흥미롭다.



장르나 매체에 대한 편식을 하지 않다 보니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뜻밖에도 요리연구가 백종원에 관한 콘텐츠다. 2019년에 업로드 된 이 영상의 조회수는 무려 1,500만 회에 달한다.

## B급 감성으로 만나는 추억의 명화들



리뷰 영상의 오프닝 타이틀은 채널 운영자가 한 땀 한 땀 손으로 그려 완성한 스케치를 이용해 직접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채널의 진짜 팬이 될 자격이 있다.



### B급 리뷰

Z세대는 그 존재조차 모를 것 같은 VHS 비디오 테이프 시대의 영화들을 소개하는 채널로 코멘트와

편집 스타일 등에서 운영자의 영화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난다. SF, 판타지, 호러, 괴물, 심령물 등 과거 주류 영화는 아니었지만 엄청난 마니아 층을 형성했던 장르들을 맛깔나는 코멘트로 리뷰한다.

특히 '코미디&주성치 컬렉션'의 경우 <희극지왕>(1999년), <식신>(1996년), <도성>(1990년) 등 90년대를 평정했던 배우이자 감독 주성치의 대표작들을 접할 수 있다. 또한 <미저리>(1991년), <스탠 바이미>(1986년) 등의 원작자로 널리 알려진 밀리언 셀러 작가 스티븐 킹의 소설이 얼마나 많이 영화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하다면 '스티븐 킹 컬렉션' 카테고리를 살펴볼 권한다.

## 유튜브와 성장한 50인의 크리에이터

구글코리아와 유튜브가 최근 한국 내 유튜브 크리에이터 50인을 선정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0개 분야에서 선정한 50인의 크리에이터 중 개성이 뚜렷한 채널 5개를 소개한다.

지식공유



조승연의 탐구생활

구독자 121만 명

조승연 작가가 운영하는 지식 콘텐츠 전문 채널로 책을 비롯해 영화, 게임 등의 이면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엔터테인먼트



피식대학

구독자 149만 명

세 명의 코미디언들이 유튜브를 무대로 만들었다. 장소와 소재의 제한 없이 자유롭고 실험적인 콘텐츠로 구독자에게 큰 웃음을 선사한다.

건강 & 의학



땡큐부부

구독자 299만 명

집에서도 실천 가능한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동 및 건강한 식습관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이다.

예술 & 공예



널 위한 문화예술

구독자 24만5천 명

예술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문화예술 전문 채널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구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재테크 & 경제



땡땡라

구독자 34만7천 명

'듣다 보면 뚝뚝해지는 라이프'는 기자, 마케터, PD가 모여 개설한 맞춤형 정보 채널이다. 채널 개설 일주일 만에 10만 구독자를 확보했다.



## 오븐에 구울까? 아님 접어? 요알못을 구원해줄 신박한 푸드 레시피

에어 프라이어에 구운 비건 두부구이, 달콤한 복숭아와 그릭 요거트의 만남, 김과 밥 위에 갖은 재료를 얹어서 반으로 접으면 완성되는 초간편 김밥까지.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즐겨보는 먹방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박한 푸드 레시피를 소개한다.



TV 예능 프로그램과 유튜브 먹방 콘텐츠를 즐겨보는 먹방러들은 요즘 어떤 먹거리를 좋아할까? 비건 두부구이, 그릭 모모, 접어먹는 김밥은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초간편 요리지만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면서 먹방러들의 핵심 레시피로 통용되고 있다.

<미운 우리 새끼>, <전지적 참견 시점> 그리고 <나 혼자 산다> 출연진이 직접 만들어 먹었던 이 푸드 레시피는 요알못(요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해줄 간편하면서도 신박한 레시피로 상종가를 달리고 있다.

우선 올리브유와 간장, 소금, 후추 등을 발라 오븐에 구운 '비건 두부구이'는 조리법이 간단해 인기가 좋은 비건 메뉴다.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배우 공명과 그의 친동생이 직접 요리한 비건 두부구이는 완성된 모습이 허니브레드를 연상시킬 정도로 시각적인 효과도 좋아 손님에게 대접하기도 안성맞춤이

다. 기호에 따라 재료를 달리 사용하면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소개할 레시피는 '그릭 복숭아'라고도 불리는 디저트 메뉴 '그릭 모모'이다. 청담동 브런치 카페에서 핫 메뉴로 꼽히고 있다는 이 요리는 복숭아와 그릭 요거트 단 두 가지 재료만 준비하면 되는 초간편 레시피 덕분에 5분 만에 똑딱 만들 수 있어 좋다. 요거트로 속을 채운 복숭아를 반으로 자르면 마치 일본식 생크림 롤케이크와 비슷하다.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 김밥 조리법을 심플하게 변화시킨 먹거리 '접어먹는 김밥'도 있다. 샌드위치를 닮은 이 음식은 취향에 따라 오이나 깻잎 혹은 게맛살, 치즈, 스팸 등을 가감해서 먹어도 좋다. <미운 우리 새끼>에 게스트로 출연한 현아는 접어먹는 김밥을 가리켜 "손바닥만 해서 먹기 편하다"라고 표현했다. 김밥을 돌돌 말아야 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한결 수월하게 완성할 수 있다.



비건을 위한 초간편 두부 요리

### 비건 두부구이

두부에 격자 무늬로 칼집을 낸다.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두부 양쪽에 나무 젓가락을 두면 자르기 편하다. 올리브 오일, 간장, 소금, 후추 등으로 만든 양념장을 발라주고 취향에 따라 바질을 뿌리거나 버섯, 방울토마토 등을 추가해도 좋다.

**재료** 두부 1모, 올리브 오일, 간장, 소금, 후추 등



K푸드 대표 간식, 김밥의 세대교체

### 접어먹는 김밥

동그랗게 마는 과정이 어렵고 귀찮게 느껴지는 사람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 김에 밥을 펴서 바르고 햄, 치즈, 단무지 등을 넣는다. 이때 재료는 4등분 한 뒤 재료가 잘 어우러지도록 차곡차곡 쌓은 뒤 반듯하게 잘라주면 완성이다.

**재료** 김, 밥, 햄, 치즈, 당근, 단무지, 참기름 등

달콤한 복숭아와 그릭 요거트의 만남

### 그릭 모모

껍질을 벗겨낸 뒤 씨를 꺼낸 복숭아 속에 그릭 요거트를 채우기만 하면 완성되는 심플한 레시피 덕분에 디저트로 사랑받고 있다. 그레놀라나 씨리얼을 접시 바닥에 깔고 꿀, 블루베리 등을 첨가하면 더욱 맛있다. 복숭아 대신 망고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재료** 복숭아, 그릭 요거트, 그레놀라 등





## ‘TTTB’에서 ‘헬시 플레저’까지 2022년을 지배할 트렌드 이슈

힘겨웠던 2021년이 지나가고 마침내 새해가 시작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양태가 크게 달라졌던 만큼 2022년에는 많은 분야에서 폭발적인 성장과 큰 변화를 보여줄 것이라 내다보인다. 임인년을 지배할 이슈들을 키워드별로 요약해 본다.

글\_ 김태진(칼럼니스트)

### 팬데믹이 변화시킨 글로벌 트렌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삶의 양태가 본질부터 달라지는 엄청난 변화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2022년의 트렌드 이슈 역시 대부분 코로나19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SNS,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온라인 기반 비대면 플랫폼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내외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이 TTTB로 집중되고 있는 추세다. TTTB(TikTok·Twitter·Twitch·Blog)라는 낯선 용어의 등장과 함께 가상현실 세계를 다룬 영화인 <레디 플레이어 원>이 여러 매체를 통해 ‘메타버스’라는 이슈의 한복판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특히 태어나면서 이미 스마트폰과 비대면 환경에 익숙한 Z세대에게 TTTB와 메타버스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사원들 대다수가 Z세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업에서도 그냥 흘러 들어서는 안 될 이슈로 보아야 한다.

최근 글로벌 리서치 기업 가트너가 발표한 ‘2022 전략기술 트렌드 톱12’에 포함된 ‘전체 경험치(Total Experience)’ 역시 기업이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트렌드로 꼽히고 있다. 고객, 직원, 사용자의 경험이 기업의 성장 가속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네 번째 이슈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다. 감염병으로 인해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건강관리도 즐겁게 해야한다는 뜻을 담은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가 나이와 성별을 초월한 대세 트렌드로 자리 잡는다는 뜻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트렌드가 언택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 ‘TTTB’, 숏폼 콘텐츠로 돈이 몰린다

틱톡, 트위터, 트위치, 블로그를 뜻하는 TTTB는 SNS를 통해 직접 밈(Meme)을 만들어 즐기는 최신 온라인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 키워드이다. 숏폼 콘텐츠란 1~5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뜻하는 용어로 지난 2017년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틱톡으로 인해 대유행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인스타그램 릴스(Reels)나 유튜브 쇼츠(shorts) 등의 서비스를 시작하게 만드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숏폼 콘텐츠는 짧으면 수십 초에 불과한 영상에 스토리를 넣거나 다양한 효과를 주어 접속자의 이탈을 막는 콘텐츠로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으면서도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이 가능해 콘텐츠의 왕좌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트위터는 이른바 덕질을 하기 좋은 플랫폼이며 트위치는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해 최적화된 환경으로 인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트위터의 경우 독창적이면서도 다양한 취향을 마음껏 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소통하기에 좋다. 예컨대 K-팝 아이들에 대한 덕질을 위해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 트위치는 Z세

대의 지지를 등에 업은 스트리머들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해킹 사고로 인해 공개된 일부 유명 스트리머의 수익이 2년간 960만 달러(한화로 약 114억)에 달한다는 사실이 트위치의 파워를 증명하고 있다.

반면 앞선 플랫폼들과 달리 블로그는 텍스트 중심의 플랫폼이다. 텍스트를 읽는 시대가 이미 저물어 가고 있지만 블로그는 Z세대를 중심으로 조용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7월 네이버가 발표한 2021년 2분기 실적에 따르면 10대와 20대의 블로그 콘텐츠 생산 비중이 40%를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Z세대가 자신의 일상을 디테일하게 기록하는 사적인 SNS 플랫폼으로 블로그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블로그를 제외한 나머지 플랫폼의 공통점은 숏폼(short-form) 콘텐츠를 위한 플랫폼이라는 사실이다. 새로운 유행이 만들어지면 단 몇 시간 만에 전 세계가 공유하는 하이퍼 스피드 시대의 ‘TTTB’는 분초 단위로 변화하는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향후 몇 년간은 숏폼 콘텐츠가 트렌드의 중심에 있게 될 것이다



메타버스의 중요성을 인식한 페이스북은 지난해 사명을 '메타'로 변경했다

### 메타버스 네이티브 세대가 온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사람들. 이른바 Z세대라 불리는 그들은 현재 20세~30세 초반까지의 세대를 말한다. 현재 사회 초년생에 해당하는 Z세대는 이른바 '메타버스 네이티브'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신인류이다. 이전 세대인 밀레니얼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진 Z세대는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던 경험이 풍부해 이미 비대면 환경에 매우 익숙하다. 학습이 아니라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했다. 미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메타버스'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메타는 그간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확보하거나 기업을 인수합병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메타버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선점하는 자가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메타의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향후 10년 안에 메타버스 이용자가 10억 명 이상에 달할 것이며 수천억 달러의 상거래도 이루어질 것이라 호언했다. 메타버스로 향하는 변곡점에 해당하는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앞날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메타버스 네이티브인 현재의 젊은 세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고객, 직원 그리고 사용자의 긍정적인 경험은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소다

### 직원의 경험이 곧 브랜딩이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 가트너는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2022년 전략 기술 트렌드 탑 12(Top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2)'를 발표했다. 가트너는 이를 통해 CEO가 기업경영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3가지로 성장, 디지털화, 효율성을 꼽으면서 12가지 전략 기술의 하나로 전체 경험치를 뜻하는 TX(Total Experience)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경험은 고객 경험(Customer Experience), 직원 경험(Employee Experience) 그리고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등을 종합해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리더

들이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의 경험을 관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객은 물론 직원의 확신, 만족도,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가트너는 몇 년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로 꼽았다. 800여 명의 전 세계 인사 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서는 HR(Human Resource) 책임자들이 집중해야 하는 3대 과제로 '조직을 위한 기술 및 역량 구축', '리더십 강화' 그리고 '직원경험(EX) 향상'을 언급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직원 경험(EX) 향상은 곧 업무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컨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큰 변화가 발생할 경우, 직원들의 건강 및 업무 환경에 따른 유연성(재택 및 원격근무 등) 제공이 능력 향상과 개인생활 보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 EX시대가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고 있다. 최근 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을 가리켜 '임플로이언서(Employee + Influencer)'라고 부르고 있다. 그들이 업무를 통해 보고, 듣고, 느끼는 긍정적인 경험은 곧 매출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좋은 경험을 쌓게 해주는 일이야말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귀결될 수 있다.

### 억지 운동은 NO, 즐기면서 건강도 챙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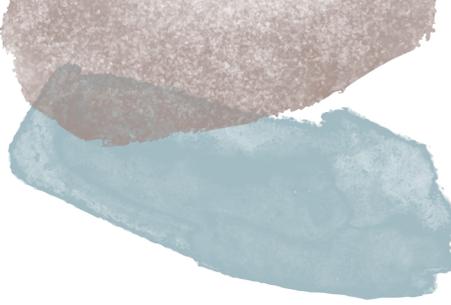
헬시 플레저(Helathy Pleasure)란 단어 그대로 즐겁게 건강을 관리한다는 뜻이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2022년의 트렌드 중 하나로 제시한 이 키워드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중요해진 건강관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전처럼 자유로운 외출이 어려워지자 체중이 늘었다는 사람들도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그들은 곧 대안을 찾아 나섰다. 홈짐을 조성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필라테스를 배우는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 SNS를 통해 매일 운동하는 모습을 인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이는 곧 '오하운' 챌린지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오늘 하루 운동'의 줄임말인 오하운 챌린지는 즐겁게 운동을 하기 위해 타인과 그날의 운동 기록을 공유하는 움직임으로 해시태그를 통해 벌써 수십만 회 이상 공유되고 있다. 운동을 인증하는 또 다른 해시태그인 '#눈바다', '#헬린이' 등은 이미 수백만 회를 상회하는 공유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과거처럼 건강을 위해 억지로 운동하거나 식

단을 관리하는 시대가 빠르게 저물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이어트를 위해 식이조절이나 강도 높은 운동 같은 고통을 무조건 감내하기보다 자신의 체력이나 형편에 맞게 그리고 편리하고 즐겁게 건강을 챙기려는 움직임이 바로 '헬시 플레저'이다. 딱딱한 삶은 닭가슴살 대신 칼로리가 낮은 소스로 입맛을 돋우는 닭가슴살 스테이크나 칼로리를 낮춘 프로틴 빵을 이용해 맛있는 다이어트를 실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편의점에 등장한 먹거리도 점차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무설탕', '저칼로리'는 기본이고 '천연 재료까지 첨가해 만들어진 건강 음료나 식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과거의 대체 음식과는 판이하게 다른 맛과 영양으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SNS를 통해 보편화되고 있다



## <SPACE ISU> 두 작가의 감성이 만나는 밤의 풍경

박세진 작가와 이혜인 작가는 각자의 감성으로 야외 공간을 느끼고 그것을 회화로 풀어내는 작업을 일관되게 이어왔다. 직접 경험한 밤 풍경에 대한 재해석. 겨울의 끝자락과 새봄이 교차하는 시기, 스페이스 이수에서 열리게 될 두 작가의 작품 세계로 안내한다.

### 같은 듯 다른 심상으로 표현하는 밤의 서정

전시 <밤의 풍경>은 제목 그대로 두 명의 화가, 박세진 작가와 이혜인 작가가 그리는 '밤'의 풍경들에 주목한다. 두 작가는 직접 경험한 야외 풍경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야외 공간을 감각하고 회화로 풀어내는 방식은 매우 다르다. 박세진 작가는 작업실 안, 캔버스 앞에 앉아, 과거에 경험했던 풍경에 대한 기억과 감정들을 소환하고 추적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극히 사적이고 파편적인 기억법과 연상법을 통해, 그만의 기억 속에 특별히 남아있는 풍경 그리고 정경뿐만 아니라 그 장면이 연상시키는 감정과 심상까지도 더듬더듬 끄집어내어 캔버스 위에 형상화한다.

반면 이혜인 작가는 야외 현장에 나가 그곳의 공간과 시간을 온몸으로 체험하여 화폭에 담는다.

그날의 날씨, 기분, 신체적 상태, 현장에서 떠오른 기억이나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 등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외적, 내적 상황들을 오감으로 느낀 뒤 그곳에 속한 자신의 상태를 캔버스에 옮겨 그린다. 다양한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관찰을 작가 자신의 경험적 시점으로 표현하는 관념적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 이를 위해 그는 2010년부터 서울 외곽 지역이나 베를린 등 자신이 머물던 거주지 주변의 풍경을 캔버스에 담은 회화 작업도 진행했다.

모두가 잠든 조용하고 깊은 밤, 이들이 조우했던 풍경에 관한 내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박세진, <밤> Night, 2005, Oil on canvas



이혜인, <베를린 여름밤 자정> The Summer Midnight in Berlin, 2012, Oil on canvas

## 박세진 작가



박세진 작가는 빛의 변화가 가장 풍부한 밤의 시간을 포착한다. 작가는 어둠에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혼재된 작고 무수히 많은 삶의 노동을 밤의 풍경 속에 중첩시키고, 다채롭고 깊은 색의 흔적을 통해 시간성과 관계성을 탐구해왔다.

<풍경의 빛면>(누크갤러리, 2018), <박세진>(두산갤러리 서울, 2013), <망토>(사루비아다방, 2006) 등에서 다

수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언젠가 누구에게나>(남서울미술관, 2020), <팔뚝들의 행진>(한가람미술관, 1999) 등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프로젝트로는 박홍열 촬영감독, 황다운 작가와 함께 <영화인에게 고함: 날 좀 봐>를 기획하였고, 2021년 <무인전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술술가)에 작가로 참여하였다.

## 이혜인 작가



이혜인 작가는 개인의 신체가 주어진 환경 조건을 즉각적으로 지각하는 방식의 그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작업 태도는 동시대 회화에서 다루어지는 회화의 공간, 회화의 장소, 작가의 신체성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제시한다.

<어느 날, 날씨를 밟으며>(갤러리 기체, 2020), <Sync>(신도문화공간, 2018), <완벽한 날들>(대구미술관, 2013) 등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재난과 치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21), <밤이 낮으로 변할 때>(아트선재센터, 2019), <Will you be there?>(Project Fulfill Art Space, Taipei, 2018), <아티스트 파일 2015: 동행>(국립현대미술관, 도쿄국립신미술관, 2015)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또한 베를린 쿤스트러하우스 베타니엔(2012), 금천예술공장(2014), 두산갤러리 뉴욕 레지던시 프로그램(2015) 등에 입주작가로 참여하였다.

## INFORMATION

### <밤의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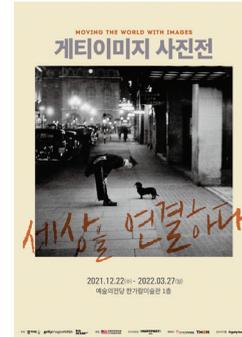
작가: 박세진, 이혜인

장소: 스페이스 이주

기간: 2022년 2월 9일 ~ 5월 8일 (전시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새해 새날, 첫 번째로 보고 싶은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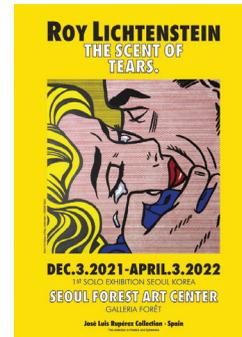
새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임인년이 밝았다. 새해 첫 번째 전시라는 의미를 고려해서 '최초'라는 부제가 따라오는 전시회를 감상하는 것은 어떨까?



### 게티이미지 사진전 - 세상을 연결하다

게티이미지 세계 최초의 사진전이 한국에서 열렸다. <게티이미지 사진전>은 1955년 창립 이후 인류의 기록을 이미지와 영상 매체로 보관하는 아키비스트(Archivist) 역할을 해온 게티이미지의 컬렉션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대규모 기획 전시이다. 4억 개가 넘는 이미지, 1,200만 개의 비디오 영상 콘텐츠 아카이브 중 엄선한 작품 300여 점을 만나보자.

① 12월 22일~3월 27일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 | www.sac.or.kr



### 로이 리히텐슈타인展 - 눈물의 향기

팝아트의 거장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국내 첫 단독 전시회가 서울숲 아트센터에서 개최되고 있다. 대표작인 <절망(Hopeless)>, <Whaam!> 등을 비롯하여 리히텐슈타인이 생전에 작업했던 130여 점의 작품들이 대거 이번 전시에 선보였다. 그의 대표작과 함께 초기 흑백 포스터 작업, 잡지 표지 협업, 공예품 그리고 작가의 모습이 담긴 사진 원본들까지 관람할 수 있다.

① 12월 3일~4월 3일 | 갤러리아포레 서울숲 아트센터



### 박수근: 봄을 기다리는 나목

한국의 대표적인 서양화가 박수근의 국내 최대 규모 전시가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총 174점의 작품과, 200여 점의 자료를 볼 수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 19점도 공개됐다. 서양화풍으로 담은 한국의 서정을 경험하고 싶다면, 박수근의 생애와 자취를 따라가는 이번 전시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① 11월 11일~3월 1일 |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 | www.mmca.go.kr

# 귀담아 듣는 독자엽서

사보 ISU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심 있게 보신 기사나 사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이수 사유 및 가족들의 많은 엽서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엽서 당첨자에게 드리는 선물 배송에 착오가 없도록 정확한 이름과 소속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정으로 가득했던 명예회장의 삶

명예 회장님 도서전 관련 기사가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예 회장님에 대하여 어렵듯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토록 문학에 진심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관심사만 다양하셨던 게 아니라 실제로 다재다능하셨던 회장님의 삶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선민 대리(㈜이수 기획팀)



### 프리미엄 브랜드로 거듭나길 바랄게요

이수건설 브라운스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지난해 리뉴얼을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벌써 20년이나 주거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왔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비 리뉴얼과 함께 본질은 계승하면서 혁신의 디테일을 더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오현주 사원(이수화학 총무서울파트)



### 사보로 떠나는 전시회 나들이

바깥 나들이가 쉽지 않은 요즘, 특히 전시회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사 건물 1층의 스페이스 이수가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번 호에는 모두 3곳의 전시 공간을 소개해 주셨는데, 사진, 회화, 조형예술까지 다채로운 미술의 장르를 경험해서 좋았습니다.

이송아 대리(이수시스템 Cloud서비스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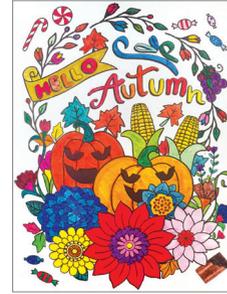
### 극한지식을 담은 유튜브 채널

매번 유튜브 채널 소개 기사를 즐겨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 경제, 의학, 과학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많아 좋더라고요. 특히 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는 금융 관련 유튜브 콘텐츠가 유익한 느낌이었답니다.

김경문 차장(이수창업투자 기획관리팀)

## 컬러링 테라피 갤러리

이수가족이 정성껏 채색해 주신 컬러링 응모작을 소개합니다. 기나긴 집콕 생활의 작은 행복, 컬러링 테라피 코너에 앞으로도 많이 응모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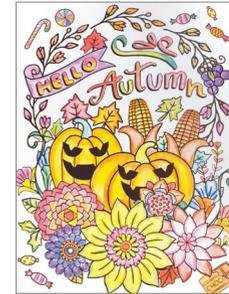
권옥석 부장 (㈜이수 기획팀)



김나현 대리 (이수화학 연구기획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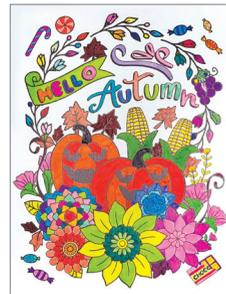
김민우 과장 (이수화학 프로젝트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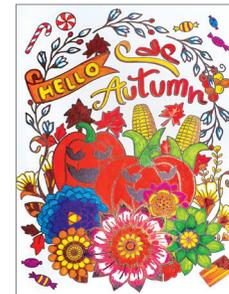
마기현 차장 (이수앱지스 제품파트)



손정구 과장 (이수역사캠 글로벌영업팀)



윤지현 님 (이수페타시스 외형가공 강성기 선임기정 배우자)



최혜인 님 (이수페타시스 경영지원팀 최정호 부장 자녀)



한수진 대리 (이수건설 플랜트영업팀)

### 이수가족을 위한 아트 힐링 컬러링 테라피

컬러링 북은 선으로 그린 그림이나 도안을 모아 엮은 책으로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 원하는 색깔로 그림을 채워가노라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스려 정서적인 안정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보 <ISU>는 마음의 안정과 힐링을 선사할 컬러링 코너를 연재합니다. 컬러링을 마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응모 방법



01 컬러링을 한다



02 인증샷을 찍는다



03 사진을 전송한다

보내실 곳 | 카카오톡 ID : hello8909 / 이메일 : ahn621@isu.co.kr

#### 2021년 가을호 당첨자 (※가나다순)

권오석 부장(㈜이수 기획팀)  
김경문 차장(이수창업투자 기획관리팀)  
김나현 대리(이수화학 연구기획팀)  
김민우 과장(이수화학 프로젝트팀)  
마기현 차장(이수앱지스 제품파트)  
윤지현 님(이수페타시스 외형가공 강성기 선임기정 배우자)  
최혜인 님(이수페타시스 경영지원팀 최정호 부장 자녀)

손정규 과장(이수엑사캠 글로벌영업팀)  
오현주 사원(이수화학 총무서울파트)  
이선민 대리(㈜이수 기획팀)  
이송아 대리(이수시스템 Cloud서비스팀)  
한수진 대리(이수건설 플랜트영업팀)

사보 ISU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솔한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자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봄호 원고 마감은 3월 15일입니다.





## 혁신의 정점이 되다

수소기술, 스마트팜, 자율주행,  
우주항공, 바이오 신약  
어떤 혁신도 이수의 기술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혁신의 가장 높은 곳에,  
이수가 있다

